

금융

"월가 전문가들 왜 美 국채 사는지 생각해보라"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

입력 2019.10.23 03:13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재테크 조언]

"고수익보다 목표수익률 안전하게 달성하는 게 중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는 22일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일수록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재무적 목표를 안전하게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버트 머튼 석좌교수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고수익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안전하게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세계경제연구원

머튼 교수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주최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표 기반 투자(Goal-based investing)'를 미래의 투자 트렌드로 제안했다. 목표 기반 투자는 미리 정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다.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기존 투자 방식과 다르다. 예컨대 노후 자산으로 10억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15억원까지 벌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고 10억원을 벌 가능

성을 최대한 높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해도 일정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는 불가능해졌다"면서 "일정한 이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법사가 아니라면 무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은 없다"면서 "월가(街) 전문가들이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머튼 교수는 리스크 관리의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분산 투자 ▲헤징(hedging·위험 분산) ▲보험을 언급하면서, '금융 보험'인 풋옵션과 콜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했다. 풋옵션은 정해진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대로 콜옵션은 일정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목표로 하는 자산 규모가 10억원이고 절대 5억원 밑으로 떨어져선 안 된다면, 5억원에 해당하는 풋옵션을 사두는 것이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5억원 이하로 떨어질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머튼 교수는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앞으로의 금리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싸다구플라위가 진짜 싸다구요!
 천태만상 가수 윤수현의
싸다구플라위
 주문 바로가기
 전국 꽃배달 1855-4900

AD 로또1등 예상번호 '32, 43,...' 무조건찍어라!

AD 로또 "자동주세요" 망했다!? 최근 수동당첨 급증하는 이유 살펴보니.. 충격!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노벨상 수상 머튼 MIT교수 "저금리 시대, 기관은 분산투자해야"

기사입력 2019/10/22 11:14 송고

"과거처럼 이익 벌어들이려면 리스크 더 감내해야"



로버트 머튼 교수의 '초저금리 시대 자산 운용전략'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0.2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초저금리 시대에 기관투자자들은 분산투자과 풋옵션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저금리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를 두고 이같이 분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머튼 교수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는 불가능해졌다"며 "일정

한 이익을 거두려면 과거에 짊어지지 않았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분산투자와 풋옵션을 꼽았다.

머튼 교수는 "국고채에 분산투자를 하고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분산투자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풋옵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풋옵션이란 주식, 채권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여기에 투자한 기관은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는 "국고채보다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 보험상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에 투자했는데 해당 기업이 도산하면 투자금을 잃게 되지만, 풋옵션에 들었다면 적어도 보증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 보험상품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려면 풋옵션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이 있어야 하며 거래 규모도 충분히 커야 한다고 밝혔다.

Financial Innovation and Asset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Age of Hyper-Low Interest Rates
Applying Financial-Services Alpha

Robert C. Merton
School of Management Distinguished Professor of Finance,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Resident Scientist, Dimensional Holdings, Inc.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October 22 , 2019 Seoul

Robert Merton provides consulting services to Dimensional Fund Advisors. He is currently a Distinguished Professor of Finance at the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This document is inten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redistribution.

YONHAP NEWS

'초저금리 시대 자산 운용전략' 강연하는 로버트 머튼 교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0.22 superdoo82@yna.co.kr

그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기반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연기금이라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목표 수익률이 될 것"이라며 "무작정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딱 그만큼의 리스크만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나는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대신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어떤 투자전략이 필요한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를 두고는 "어떤 방법이 빈곤퇴치에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했다"며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빈곤 문제가 큰 이슈"라고 평가했다.

js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2 11:14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로버트 머튼 MIT 교수 강연 "저금리 시대, 기관들 파생상품 활용을"

문가영 기자 입력 : 2019.10.22 17:56:57

초저금리 시대에 기관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활용해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저금리 환경에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알파 수익률'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머튼 교수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는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는 어떤 리스크를 부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분산, 헤징, 보험성 파생상품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이 중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보험성 파생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기관투자자가 보험성 파생 금융상품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표 기반 투자'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튼 교수는 또 기관투자자들이 금융수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은 옵션 거래를 통해 보험료와 유사한 개념인 옵션 프리미엄을 얻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보유 주식을 기초로 하는 풋옵션을 매도하면 주가가 오를 때 프리미엄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초저금리 시대, 위험관리가 중요"

입력 2019-10-22 17:23 수정 2019-10-23 02:40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사진)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약간의 위험만 감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무위험 자산으로 꼽히던 국채 등으로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튼 교수는 파생금융상품 가치 측정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금융공학의 권위자로 세계적 투자자문사인 디멘셔널펀드어드바이저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머튼 교수는 분산투자, 헤지(위험 회피), 금융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산투자는 투자 지역이나 자산 종류를 다양화해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신흥국과 선진국, 주식과 채권 등의 비중을 나눠 담는 식이다. 헤지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반대 성격의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달러로 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이 3개월 후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달러 선물을 사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보험은 수수료를 내고 원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것이다. 머튼 교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담보가 있는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금융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주로 분산과 헤지에 주목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며 “분산투자하는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산과 헤지는 무료지만 보험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머튼 교수는 “목표 수익률을 정함으로써 일정 수익률 이상에 대한 권리를 보험료와 같은 가격으로 팔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고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고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신 정확한 목표를 정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연기금은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 머튼 교수는 "앞으로의 자산관리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하는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목표를 정하고 그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머튼 교수는 "올해 초만 해도 미국 금리 인상에 이견이 없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처럼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예측해 투자하기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한경제 기자 yykang@hankyung.com

프린트

닫기

"제로금리 시대 대처할 전략 짜야"

노벨경제학상 수상 머튼 MIT교수

빈난새 기자 2019-10-22 17:30:28 금융가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의 불확실성은 너무나 큼니다. 하지만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대처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 조찬강연회에서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관련해 “투자하기에 어려운 환경임은 분명하지만 이 역시 금융환경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머튼 교수는 스톡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가치평가 방법론으로 지난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현대 금융공학의 권위자다.

머튼 교수는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된 '제로금리' 현상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진다고 금융시장이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며 “제로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누구나 금융 투자·관리 기법을 혁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오히려 돈을 내고 은행에 돈을 예치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를 서울의 주차난에 비유하기도 했다. 안전자산이 그만큼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머튼 교수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새로운 리스크를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변하는 만큼 우리가 관리할 시장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수익률을 쫓아서 시장에 들어오는 참가자는 항상 있고 그 점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혁신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혁신은 그 특성상 기초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늘 리스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같은 여러 금융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리스크를 이제는 질 수 있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리스크는 항상 인식해야 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소

인쇄하기

"초저금리 시대 '공짜 수익' 없다...리스크 더 감내해야"

'금융석학' 머튼 교수의 초저금리 시대 조언
분산투자 외에 풋옵션 통해 초과수익 높여야
공짜 수익은 없다...'목적 기반 투자' 늘려야
'DLF 손실' 곤욕 치르는 韓 금융권에 시사점

등록 2019-10-22 오후 3:46:37
수정 2019-10-22 오후 3:46:37
김정남 기자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목표 이상으로 높은 수익을 좇을 수 있겠지만 공짜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목적 기반 투자(Goal-Based Investing)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안전한 국채만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법사가 아니라면요. 초저금리 시대, 전에는 감내하지 않았던 리스크를 감수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세계적인 금융 석학인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저금리 환경에서 샤프지수(Sharpe Ratio) 이상의 수익은 어려워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샤프지수는 특정 펀드가 위험자산에 투자해 얻은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199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샤프 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개발한 지수다. 머튼 교수 역시 ‘파생상품의 가치측정 방법론’으로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금융 전문가다. 금융에 수학을 접목해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을 키운 인사로 평가 받는다.

◇“초저금리 시대, 초과 수익 어려워졌다”

머튼 교수가 바라본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 그 자체다. “과거 언젠가 미국 금리가 하늘로 솟구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채 단기물뿐 아니라 장기물 금리도) 1%대로 떨어졌잖아요.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다만 “비관론자도 있고 낙관론자도 있는데 금리가 내릴지 혹은 오를지보다 각 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예측하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래야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금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파생상품은 시장에 기여해 왔고 앞으로 그 인력도 더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머튼 교수의 투자 팁은 무엇일까. 대전제가 있다. 리스크가 없는 수익은 없다는 점이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 초과 수익률을 올리려면 더욱 그렇다.

머튼 교수의 실전 조언은 두 가지다. 그는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분산투자(Diversification), 헷징(Hedging), 금융보험(Insurance) 등 세 가지를 조합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는 분산투자자와 헷징은 잘 하지만 금융보험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거론한 금융보험은 생명보험 등이 아니라 풋옵션 등을 말한다. 풋옵션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기관투자자는 장래에 주식 혹은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볼 수 있고 올라도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는 한정적이다. 머튼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분산투자와 금융보험을 조합하면 분산투자만 한 경우보다 일정 시점에서 샤프지수가 더 높아졌다. 그는 하지만 “금융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려면 풋옵션을 사고팔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이 있어야 한다”며 “거래 규모도 커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또다른 포인트는 목적 기반 투자(Goal-Based Investing)다. 이는 선진국 중산층의 재테크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머튼 교수는 특히 연기금을 예로 들었다. “연기금은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이 목표하는 수익이 될 겁니다. 목표 이상으로 높은 수익을 좇을 수 있겠지만 공짜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목표 수익만큼의 리스크만 감내하고, 추가 수익은 포기한다는 것이다.

◇금융보험 중요성 강조...“큰 시장 있어야”

그의 조언은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국 금융권에도 시사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각자 투자 목적에 맞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한국 금융당국은 DLF를 두고 “사기”라며 존재 자체에 강경한 입장이다. 머튼 교수는 올해 3월 방한 당시 이데일리와 만나 “(투자의 세계에서) 모든 걸 안전하게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금융정책은 통제하

기 어려운 여러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머튼 교수는 금융권의 화두인 자동화·무인화를 두고서는 “미래 금융산업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은 모형 기반이고 그 모형은 인간이 만든다”며 “추상화 작업을 거치는 모형은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곤 경제학자’ 에스더 뒤플로 MIT 교수 등 3명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는데 대해서는 “뒤플로 교수는 가장 젊은 수상자여서 특별하다”며 “언제나 큰 이슈였던 빈곤 퇴치 문제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47세(1972년생)로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최연소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2202109958037005

로버트 머튼 MIT 교수 “초저금리 시대…이제 무위험 고수익 투자는 없다”

주현지 기자 jhj@dt.co.kr | 입력: 2019-10-22 16:34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 참석

기관투자자 투자 전략 분석해 발표

초저금리 시대다. 투자의 흑한기다. 위험도 낮고 수익도 높은 '과실'은 이제 사라졌다. 어떻게해야 이 초저금리 시대를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분산투자과 풋옵션'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수익 목표를 내면 바로 투자를 회수해 안정을 꾀하는 '목표기반수익률 투자방식'도 적극 권했다.

머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분산투자과 풋옵션'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의 기본은 상황분석, 머튼 교수는 세계 금융 시장의 현주소에 대해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고금리 시대 위험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일정 수익률을 봤던 게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제 리스크를 얼마나 짊어질 것이냐에 따라 기대 수익 정도가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하게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튼 교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산투자, 헤징(위험최소화·hedging), 풋옵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분산투자과 헤징 방식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풋옵션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풋옵션이란 주식, 채권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풋옵션에 투자한 기관은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성격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회사채에 투자를 했는데 해당 기업이 도산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지만 풋옵션에 들었다면 최소한 보증된 돈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단, 머튼 교수는 이처럼 금융 보험상품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려면 풋옵션을 매수·매도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이 있어야 하며 거래 규모도 충분히 커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주목받을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머튼 교수는 "앞으로 '목표 기반 수익률' 방식의 투자 방법이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무작정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목표로 설정해둔 수익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수익은 포기하는 것이다. 굳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으면서까지 또 다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매도까지의 기간을 더 짧게 만들어 손실을 적게 하고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머튼 교수는 "보험사들은 이런 방법을 많이 쓰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같은 형식의 투자는 많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가 22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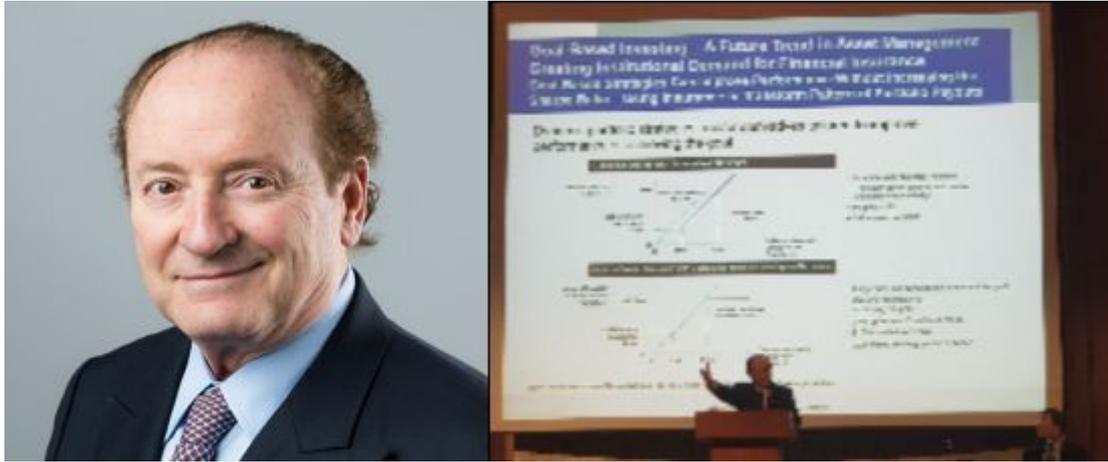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노벨상' 머튼 교수 "제로금리 낙관적 시각 안돼"

기사입력 2019.10.22 11:30 최종수정 2019.10.22 11:30



왼쪽은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사진=MIT 홈페이지)

오른쪽은 머튼 교수가 세계경제연구원(IGE)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설명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 우측 하단은 전광우 IGE 이사장.(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는 22일 "'제로금리'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머튼 교수는 세계경제연구원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금리가 낮아진다고 금융시장이 당장 붕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누구든 각국의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고 신사업 투자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997년 파생상품 가치평가, 금융투자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다.

머튼 교수는 "금리가 '제로'니까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0% 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도 있지만, 이는 마이너스(-) 수익을 감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로금리를 서울의 주차난에 비유했다. 머튼 교수는 "서울에 주차 공간이 너무 적어 많은 돈을 발레파킹에 내야 하는 것처럼, 글로벌 은행들이 안전자산을 부지런히 매입한다면 설령 고액자산가라고 해도 사들일 안전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며 "마이너스 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조차 제대로 투자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연 내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거나 객석을 향해 손짓을 해가면서 "금리가 오를 것이란 믿음이 틀린 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과거 한때 미국 금리가 하늘로 솟구칠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락했다"면서 "금리 리스크를 견디기 싫다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에 대해서는 "내년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3.2%, 2.9%, 3.3%라고들 (다양하게) 전망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의 시대다"며 "중요한 것은 금리 등락과 기대수익률을 예측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관리해 목표수익률을 확실하게 따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몇 퍼센트나 오르내릴지,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낼지보다 목표수익률까지 얼마나 잘 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경기 호황 기대감에 주식지수는 오르곤 하는데, 이 같은 일반론을 함부로 적용하기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분산투자자와 헤징, 보험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머튼 교수는 "금리가 아주 낮으면 설령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등에 투자를 하더라도 보유금 100%를 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아시아타임즈

HOME > 기업과 경제 > 경제 > 증권

머튼 MIT교수 "풋옵션 활용해 리스크 줄여야...미국, 제로금리 같지는 몰라"

김지호 기자 ✉ / 기사작성 : 2019-10-22 14:26:24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초저금리 시대에 기관투자자가 풋옵션을 적절히 활용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사진)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초청 강연에서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서면서 일정한 이익을 거두려면 과거에 짊어지지 않았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분산투자자와 헤징 그리고 풋옵션을 꼽았다. 풋옵션은 주식, 채권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여기에 투자한 기관은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IGE)

머튼 교수는 "국고채에 분산투자를 하고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분산투자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풋옵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고채보다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 보험상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에 투자했는데 해당 기업이 도산하면 투자금을 잃게 되지만, 풋옵션에 들었다면 적어도 보증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 보험상품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려면 풋옵션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이 있어야 하며 거래 규모도 충분히 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기반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연기금이라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목표 수익률이 될 것"이라며 "무작정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딱 그만큼의 리스크만 감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랙-숄즈-머튼 옵션가격결정모형(Black-Scholes-Merton option pricing model)을 발전 시킨 공로로 지난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풋옵션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라'는 뻔한 조언에 이날 강연은 맥이 빠졌다.

미국이 곧 제로금리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과거 미국 금리가 하늘로 솟구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까지 떨어졌지는 등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제로 금리로 떨어졌다고 금융시장 망하지는 않고 금리리스크는 헤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조차 제대로 투자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금리 등락과 기대수익률을 예측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관리해 목표수익률을 확실하게 얻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asiatime.co.kr>]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2202109919035001

[포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머튼 교수,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특강

박동욱 기자 fufus@dt.co.kr | 입력: 2019-10-22 16:0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가 22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운용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뉴스 > 경제

저금리 환경의 투자 혁신 방법은?...'노벨경제학상' 로버트 머튼 교수의 조언

등록 2019-10-23 00:45:42 | 수정 2019-10-23 07:51:56

"불확실성 감내해 높은 수익률 내는 건 좋은 방법 아냐...목표를 기반에 두고 투자해야"



199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금융전문가인 로버트 머튼 미국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강연하는 모습. (세계경제연구소 제공)

초저금리 시대다.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가능성을 수학으로 접목해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목표를 기반에 둔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머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 혁신과 자산 운용 전략'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강연했다. 강연은 동시 통역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연에서 머튼 교수는 "무위험 고수익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전까지 투자자들이 무위험 자산에 만족했다고 해도 이는 확장성이 없는 전략이라 더 이상 만족할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익을 거두려면 이전에 짊어지지 않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며, "만약 높은 기대 수익

률을 추구한다면 더 큰 불확실성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금융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짊어져야 하는걸까. 그전에 짊어지지 않았던 불확실성을 부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대수익률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과도한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까지 수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머튼 교수는 바로 이 점이 강연의 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알파 수익률을 내는 방법을 강연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여 정보를 먼저 얻어 알파 수익률을 거두는 방법이 있지만 단지 재빠르게 움직여서가 아니라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다. 시장에 없는 서비스나 확장성을 제공해 자본시장의 경직성을 느슨하게 할 때 알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은행을 비롯해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에서는 시도할 수 없다. 이 범주에 드는 건 헤지펀드다.

그러면 이제 다뤄야 할 건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머튼 교수는 분산투자·헤징·금융보험을 제시했다. 헤징은 위험자산을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대치하는 것이고 금융보험의 성격은 풋옵션과 같다. 풋옵션은 시장가격과 상관 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머튼 교수는 "이 세가지를 다 활용하지 않으면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실적을 내는 건 불확실성을 감내해 높은 수익률을 받는 기존의 투자 방법이 아니라 미래에 각광받을 투자 방법은 목표 기반 투자"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초 자산 포트폴리오는 같지만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고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기법"이라며 이를 '미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HANKUK.COM, INC. ALL RIGHTS RESERVED.

노벨상 수상자 머튼 교수 "금융 투자도 보험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 최성준 기자 | Ⓞ 승인 2019.10.22 17:40

콜옵션, 풋옵션 활용해 금융투자손실 방지



강연중인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제공=세계경제연구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 투자에도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리 인하, 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풋·콜옵션을 보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초저금리 시대의 금융혁신과 자산운용전략'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머튼 교수는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현 상황에서 고수익을 내고 싶다면, 리스크 감수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때에는 현명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는 '금융보험' 활용을 추천했다. 금융 투자 시에도 보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머튼 교수는 "금융투자에서도 보험처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손해를 보상해 주는 금융보험이 있다"며 "풋옵션과 콜옵션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풋옵션은 거래에서 특정 기초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하는 계약이다. 반대로 콜옵션은 거래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계약이다. 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머튼 교수는 콜옵션과 풋옵션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옵션을 얻어 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보험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표중심투자'를 할 때 금융보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목표중심투자는 목표로 정한 수익까지만 추구하고 초과 수익률은 추구하지 않는 전략이다. 예컨대 190달러의 수익을 목표로 했다면 190달러까지만 목표로 하고 그 이상의 이익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머튼 교수는 "연기금 등 목표수익이 확실한 기관이라면 고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높이지 말고 목표수익을 위한 리스크만 감수해야한다"며 "금융보험에 가입하면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기는 힘들지만 목표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옵션 발행 기관이 디폴트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며 금융보험에 가입할 때 옵션 발행 기관의 신용등급, 투명성, 유동성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는 미국의 재정경제학의 권위자로 주식 옵션 평가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된 블랙-숄스 공식을 발전시켜 세계 파생물 시장의 급속한 신장에 기여했다. 1997년 이 공식을 개발한 공로로 솔스(Myron S. Scholes)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성준 기자

홈 > 뉴스 > 뉴스 > 국제

로버트 머튼 "저금리 시대, 기관은 분산투자해야"

2019년 10월 22일 (화) 11:21:26

국제팀  press@a-news.co.kr

초저금리 시대에 기관투자자들은 분산투자와 풋옵션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저금리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를 두고 이같이 분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머튼 교수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는 불가능해졌다"며 "일정한 이익을 거두려면 과거에 짊어지지 않았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분산투자와 풋옵션을 꼽았다.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

머튼 교수는 "국고채에 분산투자를 하고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분산투자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풋옵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풋옵션이란 주식, 채권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여기에 투자한 기관은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는 "국고채보다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 보험상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에 투자했는데 해당 기업이 도산하면 투자금을 잃게 되지만, 풋옵션에 들었다면 적어도 보증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 보험상품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려면 풋옵션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이 있어야 하며 거래 규모도 충분히 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기반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연기금이라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목표 수익률이 될 것"이라며 "무작정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딱 그만큼의 리스크만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나는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대신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어떤 투자전략이 필요한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를 두고는 "어떤 방법이 빈곤퇴치에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했다"며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빈곤 문제가 큰 이슈"라고 평가했다.

<연합>

© A-NEWS(<http://www.a-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머니무브③] '초저금리 시대' 고수익으로 갈아타볼까

홍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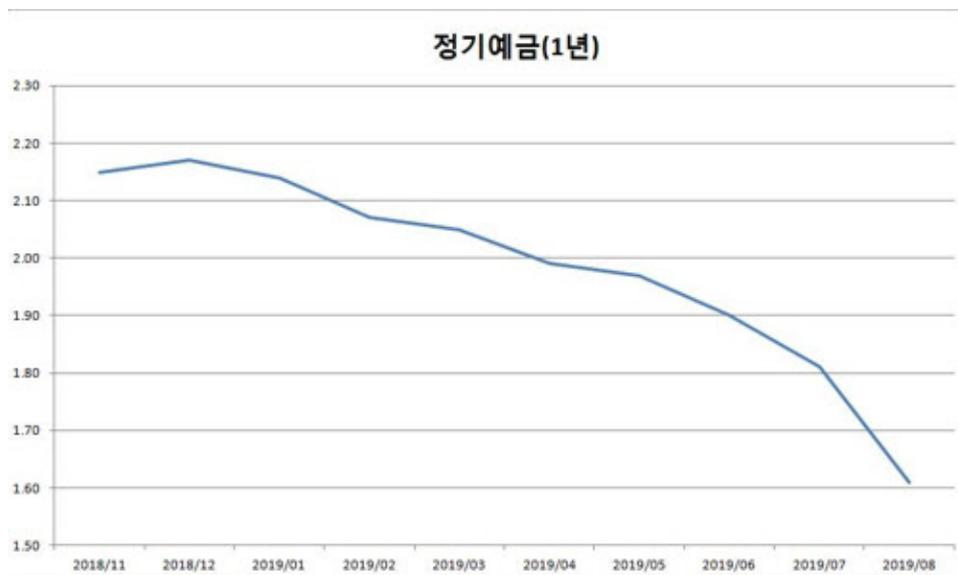
최종 기사입력 2019-10-22 17:18

돈이 움직일 조짐이 보인다. 한국은행의 올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갈아탈 태세다.

이런 현상은 안전자산 선호 완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금리 인하 후 추가인하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채권가격이 하락(금리상승)했다. 보통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금리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말이다. 아울러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원화가 강세다. 미중 무역분쟁 전운이 조금은 걷히는 모습이다.

은행에선 2%대 정기에금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연 1.25~1.50% 수준. 지난주 기준금리 하락분(0.25%포인트) 만큼 금리가 더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연 1.00~1.25%까지 하락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왈츠회전예금 II'는 현재 1.59%이고, KB국민은행의 'KB국민UP 정기예금'과 우리은행의 '우리SUPER주거래 정기예금', KEB하나은행의 'N플러스 정기예금'은 각 1.5%다.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정기예금'은 1.35%다.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추이. (출처=연합뉴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수신금리는 이번 주부터 더 떨어진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기준금리 인하범위에서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달 말쯤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기존 기준금리 인하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하나은행은 시장 상황을 보가면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달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1억원을 예금해도 고작 84만6000원(세후)을 손에 더 쥘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일까.

초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회사채, 부동산 등으로 갈아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과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 부담스럽다면 P2P 상품 등과 같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인컴(Income)형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컴펀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인컴펀드는 정기적인 소득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채권, 고배당주, 우선주, 리츠(REITs), 부동산 관련 상품 등에 투자해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꾸준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자산가격의 상승보다는 인컴 수익에 초점을 맞춰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등락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초저금리 시대에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분산투자과 풋옵션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는 불가능해졌다”며 “일정한 이익을 거두려면 과거에 짊어지지 않았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머튼 교수는 “국고채에 분산투자를 하고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분산투자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풋옵션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풋옵션이란 주식·채권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여기에 투자한 기관은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대출자의 입장에서 고정금리는 오름세, 변동금리는 내림세이지만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금리가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굳이 고정으로 갈 필요는 없을 거 같다”며 “변동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변동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제한적일 수 있어 현재 낮은 혼합형(고정) 금리가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가 이미 두 차례나 떨어진 만큼 향후 변동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당장 급하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기다려 보는 걸 권한다”고 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